

늘 사용하는 펜(Pen)

나의 책상 위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컴퓨터가 있고, 책들이 있으며, 밝히는 등(Lamp)과 서류들이 많이 쌓여있다. 그런데 그것들 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글을 쓰는 펜(Pen)이다. 4개의 큰 컵에 담겨져 있는 펜들은 여러 종류다. 색깔별로도 많고 어디서 받아 왔는지 공짜로 여기저기서 받은 펜들이 적어도 100개는 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펜들이 전부 잘 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하게 필요해서 사용할 때에 잘 나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잘 나오는 몇 개의 펜으로 글을 쓰고 중요한 일을 한다. 잘 안 나오는 것은 버리려고 늘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펜들이 있다 보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못쓰게 된 것들이 더 많게 되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펜들도 몇 개 되는데 유명하고 비싸면 무엇할까?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잉크가 굳어버린 쓸모없는 걸모습만 “몽블랑”이다.

나의 신앙생활이 그럴지 않은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늘 사용 받을 수 있는 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리고 하실 때 그 주인과 같이 또한 새끼 나귀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드러진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나의 책상의 많은 펜 중에 60%는 잘 사용하지 못할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깜빡 잊으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사용 받으신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용 받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쓰임 받고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고 하셨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님의 최선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준비된 사역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잉크가 나오다 말다하는 나의 책상 위에 많은 펜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색을 내고 찌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잉크가 안에 들어 있는 사용할 만한 펜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사용 받는 종의 삶이 되도록 힘을 다하자.